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3인방, 3연속 AG 금 이끈다

한국 여자대표팀 명단 16명 확정...강경민·박조은·송혜수 출격

한국 여자핸드볼이 3회 연속 아시안게임 우승을 위한 마지막 준비에 돌입한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지난 25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여자핸드볼 대표팀 16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강경민(광주도시공사), 류은희(형가리 교리) 등 앞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예선에서 활약한 주축 선수들이 선발됐다.

지역에선 광주도시공사 소속 골키퍼 박조은과 레프트백 송혜수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올림픽 본선 직행 티켓이 걸린 아시아예선에서 지난 23일 일본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며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연달아 정상에 올랐던 한국은 다음 달 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모여 3연속 금메달을 향한 훈련을 시작한다.

이날 함께 발표된 남자핸드볼 국가대표 16명은 다음 달 1일 진천 선수촌에 소집된다. 남자핸드볼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카타르에 뻗긴 정상 탈환을 노린다.

/김대성 기자 bigkim@

다음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녀핸드볼 대표팀 명단.

◇남자
 ▲골키퍼= 김동욱(두산) 이창우(한국체대) ▲레프트백= 장동현(SK) 송재우(한국체대) ▲레프트백= 이현식(SK) 박영준(인천도시공사) 박광순(하남시청) ▲센터백= 이요셉(국군체육부대) 강전구(두산) ▲라이트백= 김진영(스페인 아데마르 레온) 조태훈(두산) ▲라이트백= 신재섭(하남시청) 하민호(인천도시공사) ▲피봇= 구창은(충남도청) 이성민(두산) 박세웅(SK)

◇여자
 ▲골키퍼= 박조은(광주도시공사) 정진희(서울시청) 박재영(삼척시청) ▲레프트백= 신은주(인천시청) 윤예진(서울시청) ▲레프트백= 송혜수(광주도시공사) 조수연(서울시청) ▲센터백= 이미경(부산시청) 강경민(광주도시공사) 김민서(삼척시청) ▲라이트백= 류은희(형가리 교리) 강은서(삼척시청) ▲라이트백= 김선화(대구시청) 송지영(서울시청) ▲피봇= 강은혜(SK) 김보은(삼척시청)



강경민



박조은



송혜수

수창초,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배 우승

결승서 화정초에 8-7 승 포수 이연우 최우수선수

수창초가 제 3회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배 초등학교 저학년 야구대회 우승컵을 차지했다.

〈사진〉 수창초는 최근 첨단야구장에서 끝난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배 초등학교 저학년 야구대회 결승에서 화정초를 8-7로 꺾고 우승팀이 됐다.

7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부진으로 준결승에 오른 수창초는 서석초를 8-0으로 제압한 뒤, 화정초와의 경기에서도 1-7로 뒤진 6회 대거 7점을 뽐내면서 역전승을 장식했다.

수창초 안방마님 이연우가 최우수선수가 됐고, 김지후가 우수투수상을 받았다. 서준은 미기상 주인공이 됐다.

한편 제29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이 초등학교 야구대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첨단야구장에서 3일간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최우수선수상 : 이연우(수창초) ▲우수투수상 : 김지후(수창초) ▲타격상 : 장지혁(4타수 3안타·0.750·화정초) ▲최다도루상 : 구태완(3개·화정초) ▲최다타점상 : 김민기(5타점·화정초) ▲

감독상 : 김성희(화정초) ▲미기상 : 서준(수창초) ▲감독상 : 류창희 감독(수창초) ▲지도상 : 조민성 코치(수창초)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제1회 광주체육회장배 생활체육 골프대회 성료 25팀 100여명 참가



지난 25일 화순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1회 광주광역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골프대회에서 입상자와 대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남광주시체육회장, 김미성(행운상), 임상연(2위), 임규상(우승), 문지선(3위), 한창희 광주시골프협회장, 최창식 화순CC 대표.

〈광주시체육회 제공〉

제1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 골프대회가 지난 25일 화순컨트리클럽에서 골프 동호인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주시체육회가 주관하고 광주시골프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25개팀, 1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4인 1조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우승은 네트스코어 70.2점을 기록한 임규상씨가 차지했다.

준우승은 네트스코어 70.4점의 임상연씨, 3위는 71.6점의 문지선씨에게 돌아갔다. 베스트 행운상은 김미성씨가 받았다.

전남광주시체육회장은 "삶의 활력을 찾고 우리 지역 생활체육 골프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대회"라며 "이 대회를 꾸준히 개최해 생활체육 골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도청 스쿼시, 전국선수권 맹활약

양연수 여자부 개인전 우승·김다정 PLATE전 3위



제8회 전국실업스쿼시 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과 PLATE전 3위를 차지한 전남도청 선수들. 왼쪽부터 김영재 코치, 양연수, 김다정, 최창원 전남스쿼시연맹회장, 허정연, 박은옥.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스쿼시팀이 전국대회에서 활약을 펼쳤다.

전남도는 전남도청 스쿼시팀이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스쿼시경기장에서 열린 '제8회 전국실업스쿼시 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우승과 개인 PLATE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PLATE경기는 역순위 토너먼트 방식으로 1차전에서 탈락한 선수들끼리 경기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경기수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여자부 개인전에 출전한 양연수는 김가람(대구광역시청)과 배찬미(광주광역시청)를 꺾고 8강에 올라 엄화영(인천광역시체육회)를 만나 세트스코어 3-1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에서 최유라(경상남도체육회)를 11-8, 11-9, 11-5로 꺾고 세트스코어 3-0으로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이지현(대전광역시체육회)를 만

나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는 등 치열한 경기 끝에 세트 3-0으로 승리하며 여자개인전 정상을 차지했다.

1차전에서 아쉽게 패해 여자부 개인 PLATE에 출전한 김다정은 첫 경기 김하은(경남체육회)과 노윤진(경기도)을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이자연(충남체육회)에 아쉽게 패하며 3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영재 전남도청 스쿼시팀 코치는 "최선을 다해 준 스쿼시팀 선수들에게 고맙다. 또, 철저한 부상 관리와 컨디션닝케어로 선수들의 경기력을 이끌어 올라준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에도 감사하다"며 "부상관리와 경기력 관리를 잘해 앞으로 열리는 항저우아시안게임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오픈하이머, 메가로돈 2
- 2관 달짝지근해: 7510
- 3관 오픈하이머
- 4관 오픈하이머, 치치치 치킨의 비밀
- 5관 밀수
- 6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9관 엘리멘탈, 강변의 무코리타, 보호자
- 7관 씨네마골 콘크리트 유토피아
- 8관 씨네마골 콘크리트 유토피아, 밀수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 9. 15-16
광주예술의전당 원형극장
19시 30분

극단 코끼리들이 왔다는
물질

일시 : 2023-09-15(금)~16(토)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원형극장(야외)
문의 : 062-613-8235

2023. 09. 16 "17:00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GAC 재관 시리즈 - 포시즌4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with 손열음

일시 : 2023-09-16(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